



Built to Lead

즉시 배포용: 2016년 7월 21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가 뉴욕주의 “차선양보(MOVE OVER) 법률”을 자원봉사 소방관 및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

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“차선양보(Move-Over)” 법률을 자원봉사 소방관 및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.

이 법안(S.7938/A.8702-A)에서는 도로에서의 비상 상황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소방관이나 구급차 운전자가 운행하는 청색 또는 녹색 등이 점등되는 차량이 접근할 때,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줄이고, 차선을 양도할 의무를 부과합니다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비상 상황에 최초로 대처하는 인력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와 동료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, 종종 자신의 안전과 건재까지도 위험에 빠뜨립니다. 이 새로운 법률은 최초 대처 인력들이 도로에서의 비상 상황에 대응할 때,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.”

이전에는 “차선양보” 법률이 적색, 백색 또는 황색 등을 점등하고 있는 정지된 경찰차, 비상 차량 또는 위험 차량에 접근하는 운전자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.

주 상원의원 David Vale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현재의 ‘차선양보’ 법률은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줄이고 1개의 차선을 양보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찰차, 비상 차량 및 위험 차량 운전자들을 보호하지만, 자원봉사자인 비상 상황 대처자들은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법률을 확대하는 것은 자원봉사 소방관과 구급차 운전자들이 비상 상황에서 지원 활동을 제공할 때, 이들의 안전을 확대할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중요한 보호 조치를 법률에 반영한 것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.”

주 하원의원 William B Magnarel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이것은 많은 수의 자원봉사 화재 및 구급 기관에서 사용되는 “청색” 및 “녹색” 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“차선양보 법률”에 대한 상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. 모든 최초 대응자들은 우리의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비상 상황에 대응할 때, “차선양보 법률”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 이 새로운 법률은 그들이 공공에 봉사할 때 그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.”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